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올해부터 1형 당뇨 관리기기까지 포함… 1인당 최대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 당뇨 암, 심·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휴경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 담한 1형 당뇨 관리기기 및 치료비로 본인부담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약제비, 특진료, 조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설의료의 치약과 식대 등이다. 특히 올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 1형 당뇨 관리기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종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5일

할 예정이다.

1형 당뇨 환우회 전북지역 학부모 대표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난치병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 개정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창조 나라 시청각실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9월 개정된 운영 요령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교복 디자인 공개 의무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교복 검수 및 사후관리 절차 명확화 등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치수 측정 및 납품 과정에서의 민원 예방, 입찰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주요 민원사항을 정리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민족 할 수 있는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각급 학교의 운영요령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초등교사 정원 감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교사, AI 시대일수록 더 필요하다”

교원양성대 총장협, 초등교사 정원 감축 중단·교원 확충 촉구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박병준)는 지난 15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초등교사 정원 감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특수교육 등 복합적 교육 과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교원의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심리지원, 특수·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확충이 명시돼 있으며,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과제에서도 초등교사의 전문성 심화와 역할 확대가 강조돼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AI시대의 교육일수록 사람 중심의 초등교사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기적 재정 효율화에 따른 정원 감축은 미래교육의 후퇴이자 공교육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AI 기반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AI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초등교사 확보와 전문 연수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대학이 중심이 돼 AI 교육전문교원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교사 교육과 현직교사 연수를 연계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준 회장은 “AI는 교육의 도구일 뿐 학습지에 대한 이해와 관계 형성은 결국 교사의 몫”이라면서 “AI 시대일 수록 교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초등교사 정원 유지와 분야별 증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법률 상식

특강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청년들의 안전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실전형 법률 특강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첫 출근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을 주제로 졸업 예정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노동법 상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법률 지식이 곧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반영,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특강은 이정훈 변호사가 강연 자로 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외 취업 청년들의 부당한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사전 법률 교육의 중요성과 노동법 감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상식과 사회 적응 교육까지 함께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원광대서 직업계고 선취업 계약학과 운영 협약… 전북형 직업교육 성장경로 구축



16일 원광대학교에서 직업계고 선취업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주 방안을 마련한다. 원광대는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산업체는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기업·대학이 함께 지

역 인재를 키워가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 지역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차세대 에너지·촉매 기술 연구 선도

전북대 과예지·양우경 석사과정생

이공분야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또한 과예지 학생은 ‘고성능 암모ニア 산화 반응을 위한 단일 원자 Pt/메조다공성 텅스텐 질화물 촉매 개발’이란 연구로 친환경 기술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장려금 지원을 통해 두 학생은 연구비와 안정적 연구 환경을 확보, 창의적으로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우경 학생은 ‘수소 연료전지의 백금 촉매 담지를 위한 고분자 블렌드 자기 조립 기반 메조다공성 탄소 소재 개발’ 연구로 차세대 청정에너지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연구 주제를 제시했다.

/장은성 기자

온라인 통한 대학원생 맞춤형 취업 지원

전북대, 내년 1월 말까지 온라인 취업박람회 마련

맞춤형 채용정보 등 제공…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내년 1월 31일까지 ‘JBN-G 대학원생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원생들이 손쉽게 취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 공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평소 유료로 운영되는 인성·역량 진단검사를 전북대 대학원생에게 무료로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취업자료실을 통해 이력서 작성 가이드, 일반 사진을 정장 차림의 이력서용 사진으로 변환하는 기능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채용관에는 대학원생 채용에 특화된 기업 정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공고도 마련했다.

아울러 10월부터 12월까지 취업 특강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대학원혁신부 관계자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원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정보보호제도 이해하기 쉽게

전북교육청, ‘들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축·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들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개발된 혁신적 정책서비스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개인정보 권리와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해 대화형 음성으로 안내하는 ‘생성형 AI 기반 자동 해석’, 시각장애인·고령층 등을

/장은성 기자

내일 ‘전북 초등학생 동요 부르기 대회’ 전주대 리사이틀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주대학교 리사이틀홀에서 ‘전북 초등학생 동요부르기 대회(본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및 초등 음악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획됐다.

이에 본선 무대에는 득창 부문 1~2학년, 3~4학년, 5~6학년에서 각각 10팀씩 30팀과, 중창 부문 10팀 등 총 40

팀이 참가한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팀은 각자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등음악교育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호흡 및 발성, 리듬 및 음정, 표현 및 태도 등을 심사해 수상팀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 금·은·동상에는 교육감상을, 장려상에는 초등음악 연구회장을 수여된다. /장은성 기자